



제주지사 선거 문대림·오영훈 오차범위 내 ‘경합’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문대림 23%·오영훈 20%·위성곤 16%·김승욱 5%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문·오 초점전 양상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문성유·김승욱 경합 구도 교육감 지지도 김광수 35% 1위… 고의숙 의원 14%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현직인 오영훈 제주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 관련기사 2·3면

제주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23%, 같은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 20%로 양측이 오차범위(±3.1%) 안에서 경합했다. 이어 위성곤 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의 지지율로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를 당협위원장은 5%, 송재호 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4%, 국민의힘 소속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또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양윤녕 소나

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거절한 부동층은 26%다.

각 정당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지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문 의원의 27%, 오 지사의 22%로 오차범위 안에서 양측이 접전했고, 이어 위성곤 의원 20%, 송재호 전 의원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접전 양상을 보였다. 문

성유 전 기재부 기초실장 20%, 김승욱 제주시를 당협위원장 19%로 양측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4%, 국민의힘 1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광수 현 교육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김 교육감은 3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14%,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 9%, 김창식 교육의원과 오승식 교육

의원 각각 5% 순이다.

한편 한라일보와 삼다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공동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CATI)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도의회 농수축위, 탐라해상풍력 변경 동의안 심의 ‘지정 면적 확대’ 논란 속 통과

변경 면적 51만㎡→786만㎡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

발전 규모를 30MW에서 102MW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정 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넓히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

위원회는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위는 부대의견으로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 ▷풍력자원 관리

기관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탐라해상풍력은 풍력발전 조례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 이전인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사업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구 지정 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정 지구 지정과 동일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전의 기록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제정 이후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

며 개정된 조례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를 요구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면적은 15배, 용량은 3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인 만큼 공공주도에 준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만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변경 절차는 신규 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른 공공주도 사업만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 연휴 대체로 포근… 낮 기온 10~16℃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지역은 한 차례 비 날씨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흐리거나 맑아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14~18일) 기간에 15일 오전 한차례 비 날씨(강수확률 60%)가 예보됐으나, 나머지는 흐리거나 맑겠다. 다만 14~15일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설날 당일인

17일은 흐릴 것으로 보이나 기온은 다소 포근할 전망이다.

이번 중기예보기간(13~19일)의 아침 기온은 4~12℃, 낮 기온은 10~16℃로 평년(최저기온 4~5℃, 최고기온 10~12℃)보다 조금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해상과 남해서 부해상에서 1~3m로 일겠다.

며칠째 이어졌던 한파가 물러가면서 9일부터 기온을 회복해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움을 향한 도약” 제주대학교와 함께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제24기 유학(儒學)대학 교육생 모집

1. 접수 및 등록기간

가. 기 간 : 2026. 1. 19(월) ~ 2026. 2. 27(금) (토요일은 휴무일)
나.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사무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다. 접수방법 : 본원 및 향교재단 방문 및 팩스, 우편으로 접수
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1부, 사진(3 * 4) 2매

2. 모집정원

50명

3. 지원자격

제주도민(성인)

4. 등록금(수강료)

가. 등 록 비 : 1년 200,000원
나. 입금계좌 : 03-01-104459 제주은행(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으로 입금

5.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3. 6(금) ~ 2026. 12. 4(금)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 간 : 매주 금요일 15:00 ~ 17:00
다. 교육장소 : 제주향교 충효관(제주시 서문로 43번지 제주향교)

6. 주요 강의 주제

－ 유교의 성현과 도통
－ 유가·불가·도가
－ 유학에서 배우는 기본 윤리
－ 문묘와 유교 의례
－ 기타 인문학
－ 유학과 경전
－ 논어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
－ 맹자의 사상
－ 문화유산답사

7. 수료 및 시상

가. 수 료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교육시간의 2/3이상 출석자)에게는 제주대학교총장 명의 수료증, 향교재단 이사장 명의 선비인정서를 교부함
나. 시 상 : 학업우수자에게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상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상 수여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또는 제주향교,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lifelong.jejunu.ac.kr>) 참조 및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 (재)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 ☎ 757-2249, FAX : 759-2249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 754-2704~5, FAX : 702-5508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장 · (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이사장